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충무병원에 갔다.

오늘은 어시에 병원을 가야해서 7시 53분에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macbook
 을 키고 제티박스에 들어가서 출석체크를 했다. 8시 30분까지 큐브를 섞으면서
 놀다가 아침밥이 다 도어서 밥을 먹었다. 메뉴는 국과 밥, 각종 채소들, 튀치,
 계란등이 있었다. 밥을 다먹고 집에서 나왔다. 김밥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택시가 와서 탔다 그리고 바로 충무병원으로 갔다. 택시에서 내려 충무병원으로
 들어가서 종이를 받고 Xray를 찍었다. 등기보스할때와 풀었을 때 그비 적었다.
 내가 정형외과에 온 이유는 3월 29일에 깡이 골절되었다. 하지만 계속
 4주동안 참고 있다가 가서 이상한상 테로 뼈가 붙어버렸다. 그러다가 뒤늦게
 뼈가 튀어나우길봐서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 2주뒤에오면 수술할때
 를 정해준다고 해서 돈을주고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갔다. 집에 들어가자 아무도
 없었다. 다시 macbook을 키고 제티 박스를 들어갔다. 유희승이 내디음으로
 출석체크를 하고 디폴을 올렸다. 제티 박스란? 내 친구들과 만든 카페이다. 우리
 우리반을 칭찬스티커 - 1년정스티커를 해서 7개가 되면 쿠폰을 만들어 쿠폰중에서
 초코우유를 먹을 수 있는 쿠폰이었다. 나는 칭찬스티커 1개만 더 모으면 쿠폰을 받았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영어공부를 계속했다.